

제 목 : 나는 이렇게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저는 직업상담사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로 오랜 기간 근무를 해왔으나 구직상담과 취업 실적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었고,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챙기기 위해 고민 끝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미루고 미뤘던 수술도 받아 건강을 회복하였고, 폭 쉬어 스트레스를 해소한 후 새로이 취업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직업상담사가 아닌 행정 분야에 더 소질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재능을 살려 취업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고, 이를 위해 직업훈련을 받아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뛰어들 구직시장은 무섭도록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행정이나 회계 관련 직무로 취업을 하기 위해 찾아본 구인 정보는 대부분 경력자를 찾는 것이었고, 신입으로 지원하더라도 면접 제의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간혹 면접 제의를 받아 자신있게 면접에 임했음에도 결국은 아무 연락을 못 받거나 탈락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40대라는 나이와 지원 직종의 경력이 없는 점이 큰 걸림돌이 되었고, 심지어 기혼이지만 자녀가 없다는 점으로 인해 임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섞인 소리를 면접 장소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이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점점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업상담사로 근무할 때는 내담자들의 취업 자신감을 북돋워주기 위해 힘썼는데, 저는 홀로 구직활동을 하려니 힘들기도 했고 이대로 구직활동을 계속하다가는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구직활동마저 단념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새일센터 상담사님이셨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되어 있는 제 정보를 보고 알맞는 일자리가 있다며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혼자 구직활동을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흔쾌히 알선을 요청 드렸고, 곧바로 면접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의 논문 관련 협회 사무행정직이었는데, 면접 당일 익숙하지 않았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려다가 면접 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면접 관계자의 연락처를 몰라서 새일센터 상담사님께 다급히 연락 드렸고, 면접 장소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사무장님께서 새일센터 상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답사님의 연락을 받았으며, 앞서 진행되던 면접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괜찮다며 다독여주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면접을 보았으나 결국은 합격하지 못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 노력하는 새일센터를 보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안 있어 새일센터의 박은미 상담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일센터와 인연이 생긴 후 종종 연락이 오던 분이었는데, 저에게 알맞아 보이는 학원 행정직 일자리가 있으니 지원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의 단순 행정직이고 집에서 거리도 있어서 지원 생각이 없었는데, 상담사님께서 학원 원장님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조건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인공고에 적혀있는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상세한 설명에 믿음직한 일자리 소개라는 인상을 받았고, 지원하고 싶다고 했더니 바로 다음 날에 면접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집을 나서서 면접 장소에 갔고, 근처는 어떤 곳인지 근무하는 곳은 어떤지 살펴보고 시간 맞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과의 면접은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단히 근무조건을 설명해 주시더니, 오래 알고 지내고 있고, 믿고 있는 새일센터의 상담사님으로부터 소개받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채용의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면접은 난생처음이어서 당황했습니다. 면접은 면접인데 이미 채용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저의 입사 의지를 물어보는 면접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저의 경력이나 장점을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새일센터 상담사님으로부터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전화통화로 저에 대해 물어보시던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셨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면접 당일 입사의사를 밝히고 출근일자를 정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일센터 상담사님께서 면접 소감을 물어보셔서 알려드렸고, 잘 마치고 오셨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첫 출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가끔 찾아오셔서 근무중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소소한 선물도 주시니 좋았습니다.

게다가 상담사님께서 원장님과 면담을 하시더니 제 급여까지 조정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저시급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니 감동이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직장에 벌써 한 달 반을 근무하고 있고, 정말 좋은 원장님을 만나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 일하는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여성인턴으로 채용되어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하면 혜택이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근속 장려금을 받으면 남편과 축하 파티를 하기로 해서 그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나이나 경력, 구인 정보를 얻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새일센터의 취업 지원 제도를 많이 알려 도움을 받게 하면 좋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어려운 점도 도와주시면서 무엇보다 취업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도록 지지해 줍니다.

끝으로 저의 취업 성공의 키맨이며, 지속적인 관심을 주고 계시는 새일센터의 박은미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